

한국법제연구원 NEWS

‘현장에서 함께 하는 이사장’,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한국법제연구원 방문

일시
2021년 6월 2일(수)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6월 1일(화) 16시부터 연구원을 방문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하는 이사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본 행사는 이사장이 직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지역별·분야별 정책연구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관 투어-기관장과의 면담-연구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정해구 이사장을 비롯하여 윤두섭 기획조정실장, 서호진 부전문위원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김계홍 원장을 비롯하여 강현철 부원장, 현준원 경영지원실장, 차현숙 미래법제사업본부장, 손 현 기획평가팀장, 장은혜 기후변화법제팀장, 조용혁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이준서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마지막 순서인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인문, 사회, 복지 등 융복합적 정책 연구의 발전방향 및 연구환경 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개최

일시
2021년 6월 3일(목)
장소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
크리스탈홀 및 온라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일(목) 오후 2시부터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 크리스탈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국내 전문가 약 10인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본 학술행사에서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국내도입방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심도 있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효율적인 입법영향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입법평가 실무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입법평가 제도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15년 동안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입



법정책 및 입법문화 발전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입법 분야 전문가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자료집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발간물>자료집에서 볼 수 있다.

제8차 2021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장소
온라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0일(목) '디지털 전환 속의 Data 규제혁신: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8차 2021 규제혁신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가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분야의 규제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세션에서는 '정보 활용 촉진과 제도적 대응과제'를 대주제로 전용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가명처리 활용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 전철희 SK C&C 그룹장, 심동욱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이 심층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및 규제 현황과 입법동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영상정보 활용에 있어서 법적 장애요인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지능화 시대의 새로운 정보주체 권리'를 대주제로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도입'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이진규 네이버 이사, 김중윤 스캐터랩 대표,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새로운 권리 규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마지막 순서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개인 정보이동권을 둘러싼 권리 개념의 확장 가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정운 벅크샬러드 변호사, 임태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연구교수, 배일권 4차산업혁명 위원회 데이터기획관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제17회 통일법 포럼 개최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모팍트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1일(금) 10시 30분부터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팍트홀에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 비교와 평가'를 주제로 "제17회 통일법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검색되어 있는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극복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

련되었으며, 대북 및 법제 분야 국내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미래를 향한 아젠다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변호사는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대북제재에 대해 분석하고 제재의 평가 및 전망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함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시스템과 북·미 갈등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또는 특수관계, 한반도 평화 기여를 명분으로 개별 행위별 제재 프레임에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장소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 고양시장)는 6월 11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지역탄소중립 이슈의 공유·분석·활용 공동연구 및 기반조성 ▲인적자원 및 연구 자료의 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역탄소중립전략수립, 지역 에너지전환 등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탈플라스틱 캠페인 '고고챌린지' 동참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산업연구원 원장의 지목을 받아 탈플라스틱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하였다.

2021년 1월부터 환경부에서 시작한 '고고챌린지'는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1가지 행동과 할 수 있는 1가지 행동을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약속하고 다음 도전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의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김계홍 원장은 '플라스틱 빨대 쓰지 말GO! 개인컵 사용하GO!' 라는 실천사항으로 참여하였으며, 다음 주자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원장을 지목했다.

김 원장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모여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임직원에게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지양하고 개인컵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초청 제45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일시
2021년 6월 28일(월)
장소
JW 메리어트 서울 그랜드볼룸2 및 온라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8일(월) 오전 7시부터 JW 메리어트 서울 그랜드볼룸2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을 주제로 "제45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자양분이 된 빅데이터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며 "우리 모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정보에 기반한 맞춤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일상의 편리함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될 수 있는 입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발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며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자동화 결정에의 대응권 도입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실질화 ▲동의제도 개선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안전한 가명정



보 처리 환경 마련 ▲형벌 중심의 경제제재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 ▲법령 간 정합성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에 대한 논의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아젠다를 찾고 합의를 유도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빠르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에는 의료 데이터 가명정보,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제1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개최

일시
2021년 6월 30일(수)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홀 및 온라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6월 30일(수) 오후 3시부터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기후환경법정책센터(센터장 정서용), (사)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와 함께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탄소중립과 공정전환’을 주제로 “제1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각국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린뉴딜과 그린이코노미에 대한 내용과 함께 독일정부의 공정전환에 대한 전략을 다루었다.

이날 행사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종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전 환경부 차관의 환영사와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 독일대사관 대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팬데믹, 빈번한 자연재해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후위기’가 꼽히고 있다”며 “전 지구적으

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이행은 경제 구조와 사회 기반에 획기적인 도전과 기회를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에 4차례에 걸쳐 진행될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에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종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전 환경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탈탄소구조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던 산업 및 종사자의 어려움을 가법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UN이 2015년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핵심은 ‘No One Left Behind’라며 “탄소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포럼에서 훌륭한 정책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 사왓 초드허리 기후변화 전문관(UNDP 서울정책센터)이 ‘그린뉴딜과 공정전환’을 주제로, 펠릭스 메트리스 에너지 기후변화 연구 조정관(요코 연구소)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독일의 탈석탄 전략 및 정책’을 주제로, 크리스 홉킨스 사업 및 정책 전문관(녹색경제연합)이 ‘녹색경제와 공정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김상훈 기후전략과 팀장(환경부), 홍현중 사무총장(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경희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임시정 부교수(고려대학교 국제학부)가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2021 K-LAW 포럼 개최

일시
2021년 7월 8일(목)-9일(금)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 및 온라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8일(목)-9일(금) 양일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해외 한국법 연구와 교육의 현황과 쟁점(Current Issues in Korean Legal Studies and Education)’을 주제로 2021년도 “K-LAW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외 연구자들의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우수기관의 연구자들과 한국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2012년부터 K-LAW 포럼을 정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개최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K-LAW 포럼은 지역별로 ▲유럽 ▲미국 동부 ▲미국 서부 및 하와이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 한국법 연구자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에는 Pablo Sanz Bayon 교수(코밀라스 교황청대), Birgit Daiber 교수(서울대), Robert J. Rhee 교수(플로리다대), 노정호 한국법센터장(콜롬비아대), Lincoln Davies



학장(오하이오대 법과대학), 김성은 교수(UC어바인)와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인 백태웅 한국학연연구소장(하와이대)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주요 주제는 ▲한-EU FTA의 기본적 자유와 기술법, 디지털 비즈니스에 관한 연구 및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법 교육과 한국법 연구 진행 ▲미국 및 한국법에 따른 북한 인권 보호 ▲법률조사의 국제적 수행 ▲한국 재산법의 비교법적 특징 ▲이사회 구성 특례 규정 등이다.

제9차 2021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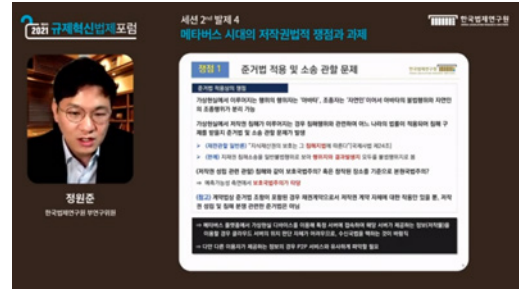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장소
온라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3일(화) ‘메타버스(Metaverse), 확장가상세계의 부상과 현안과제’를 주제로 “제9차 2021 규제혁신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실시간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등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메타버스 산업 동향 및 정책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초발제에 나선 김경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상세계에서 소통·놀이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메타버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게임기업이 만들고, 신생기업이 투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기업 성장 및 신(新)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가상융합화의 진전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박진호 문화재디지털복원기가 ‘메타버스 시대의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 영역별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메타버스 시대의 법제도 쟁점’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또 다른 세계’ 메타버스의 부상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메타버스 시대의 저작권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메타버스의 구현과 관련한 쟁점으로 ▲준거법 적용 및 소송 관할 문제 ▲저작권법상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저작권 보호대상 및 범위: 배경 ▲아바타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문제 ▲AR에서 데이터 추출 및 변형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의 제한사유를 꼽았다. 이어 제도적 대응과제로 ▲마이크로 콘텐츠 활용 방안 마련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해석 준칙(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이용 법리의 확대 해석 및 새로운 법리 개발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재원 텍스트 대표, 황철호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회장, 김창화 한밭대학교 교수, 배기동 KT 상무, 강준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상무,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 회장이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개최

일시
2021년 7월 21일(수)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및 온라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월 21일(수) 오후 4시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기후환경법정책센터(센터장 정서용), (사)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와 함께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되었던 제1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 이어 이번 포럼 또한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전략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부안에 대한 최신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1단계 적용 부문 중 하나인 ‘철강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탄소가격정책(carbon pricing), 탄소가격공제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포럼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발제 세션에는 베노이트 로리(Benoit Lory) EU 대표부 공사참사관, 안드레이 마르쿠(Andrei Marcu)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을 소장, 그리고 게오르크 자흐만(Georg Zachmann) 브루켈 선임펠로우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목적과 개요, 법적 로드맵, 당면과제 등에 대해 다면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개원 31주년 기념식&학술대회 개최

일시
2021년 7월 29일(목)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및 온라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9일(목) 원내 대회의실에서 개원 31주년 기념식 및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임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였다.

개원 31주년 기념식에서 김계홍 원장은 “지금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민함이 필요할 때”라며 임직원에게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을 위하여 “우리 모두 같이 갑시다!”를 외쳐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기관 공로자와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기념 케이크 커팅식으로 오전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오후 2시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학회와 함께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계·연구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20인 이상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원 31주년을 맞이한 한국법제연구원이 선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학회 최성근 학회장은 한영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의 후퇴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 경제·산업 구조의 재편, 언택트 사회·문화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입법과제를 논하는 장이 마련된 것은 이번 학술대회가 처음인 만큼 의미 있는 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빛미디어 이사회 박태웅 의장이 ‘COVID-19와 미래 혁신: AI의 시대,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박 의장은 글로벌 IT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고 변화 속도가 빠른 현 시대의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학술대회의 제1분과는 ‘경제활동·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대주제로 ▲비대면·플랫폼 산업 성장과 입법과제 ▲재택·원격근무의 활성화와 입법과제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선임연구위원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상헌 교수가 발표했다.

제2분과는 ‘일상생활·교육·행정 방식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대주제로 ▲일상생활·교육환경의 변화와 입법과제 ▲AI행정과 입법과제에 대해 각각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과 목포대학교 법학과 김도승 교수가 발표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개원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500여건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신산업 규제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이 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본연구과제로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등을 선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입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제7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 개최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 및
온라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9일(목) 10시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7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계 전문가 10인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하였다.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박종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장지연 실장(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동훈 변호사(법무법인 더함)가 각각 ▲ 사회적 금융의 의의와 향후 발전을 위한 약간의 제언 ▲ 사회적 투자자 육성의 필요성 ▲ 사회적 금융 법제 논의의 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종현 교수(경상국립대학교)는 “전통적 금융이 각자의 선택과 공동의 목표가 정렬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보다 강조했다면, 사회적 금융은 그에 더해 목적·가치·윤리 등 내적 동기를 함께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며 “인센티브와 내적동기가 어떻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사회적 금융의 성공을 위한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지연 실장(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 금융 자금공급 현황을 소개하며 2000년대 이후로 사회적 금융과 관련하여 민간 주체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투자자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1. 중개기관-금융도구 제도화 2. 도매기금 지정·육성 3. 자조기금 조성 촉진을 강조했다.

이동훈 변호사(법무법인 더함)는 사회적 금융 법제 논의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며, (가칭)사회적금융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기존 금융시장에서 논의가 활성화된 ESG와 CSR, CSV, SRI 등 유사 개념과의 연계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관련 입법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다소 포함되므로 각 사회적금융 주체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정부정책 시행의 법제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적가치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가치의 입법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국제심포지엄: 한일관계, 대전환을 논하다' 개최

일시
2021년 8월 26일(목)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대강당 및
온라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8월 26일(목)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대강당에서 '국제심포지엄: 한일관계, 대전환을 논하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소 인원이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색된 한일관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한일 양국의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김현철 소장, 이수훈 前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 등을 포함하여 한국·미국·일본·중국의 국제법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교류 제약 등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 결국에는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

서 국제질서 속에서의 한일관계 문제를 조명하며 그 단초를 찾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제심포지엄은 기초강연과 3개 세션의 학술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기초강연에는 최상용 前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과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연사로 나섰다. 특히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갈등에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훈 前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은 '한일관계 대전환의 전선: 지방, 젠더, 세대'라는 주제로 이진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하루키 이쿠미 연구원(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 권용석 교수(히토츠바시 대학)가 발제자로 나섰다.

제2세션은 '한일관계 대전환의 구조와 양상'이라는 주제로 이순태 연구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손 열 교수(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기미야 다다시 교수(도쿄 대학), 브래드 글로스턴 부소장(타마 대학 룰메이킹 전략센터)이 한일관계 전환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조양현 책임 교수(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사회로 진행된 제3세션은 '한일관계 재정립의 방향과 전략'의 주제로 남기정 교수(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에야 요시히데 명예 교수(게이오 기주쿠 대학), 이용일 前 주 아이보리코스트 대한민국 대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달시파켓 초청 제4차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일시
2021년 8월 31일(화)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1일(화)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달시파켓 번역가를 전문가로 초청하여 '문화콘텐츠와 자막 번역'을 주제로 제4차 전문가 초청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전 직원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2019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을 비롯하여 "아가씨", "히말라야" 등을 번역한 달시파켓은 번역가뿐 아니라 영화배우,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달시파켓 번역가는 이번 특강에서 ▲자막 번역 프로세스 ▲자막의 간결성 ▲문화 번역 ▲협업 ▲소셜 번역과 영화 번역의 차이점 등을 목차로 자막 번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는 2021년 6월부터 법령번역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1차는 박지영 교수(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가 "번역산업의 미래와 번역 메모리 저작권"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하였고, 2차는 오지은(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강연자의 "컴퓨터 보조번역의 교육 수요와 교육 방식", 3차는 사라오 교수(가천대학교)가 "법령번역 비교사례:미국법원의 번역 현황"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